

## 01 : 교실의 재구축 사례

The Example of Classroom Construction



오 영 옥 / 오기사디자인대표  
O, Young-Wook / Director, Ogisadesign D'espacio  
nifilwag@naver.com  
순천 성남초등학교 설계



김 현 진 / SPLK 건축사사무소 대표  
Kim, Hyun-Jin / Director, SPLK Architecture Office  
splk0576@korea.com  
대구 영화학교 설계

### 1. 학교공간에서 문화공간으로

#### 1.1 사업배경

학교 교실은 교육의 기능과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물적 환경으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활동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학교 교실은 이 시대에 맞는 교육 및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다양한 실천방안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2008년부터 '문화 중심의 축축한 교육환경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시작된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전국 26곳의 초, 중, 고등학교에 아름답고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주었다. 1) 리모델링을 통해서 획일적이고 기능적으로 조성되었던 학교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바꾸고 더 나아가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관계가 보다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이 사업이 두각을 나타낸 것은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사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한다는 점인데 이와 같은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으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010년 사업을 위한 공모에는 전국에서 263개교가 신청하여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 사업 대상학교는 시급성, 학교의 열의, 지역분포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류심사에서 30개 학교를 선정한 후 현장실사를 통해 11학교가 최종 선

정되었다.<sup>2)</sup> 그 중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네 번째 프로젝트 순천성남 초등학교와 2010년도 첫 결실을 선보인 대구 영화학교의 사례를 통해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즐거운 학교' 공간이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의 과정이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2. 순천 성남 초등학교

#### 2.1 사전조사

전라남도 순천시에 위치한 성남초등학교는 1945년에 개교한 학교로 현재 약 600명의 어린이가 재학 중이다. 학교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건물 속에는 수업을 위한 간결한 집기와 시설이 있을 뿐, 문화적인 혜택이 다소 적은 곳이었다. 이 학교는 ㄷ자형으로 하나의 본관을 중심으



그림 1. 대상 공간현황

1) 2010. 08. 27 조선일보

2) 2010. 08. 27 공감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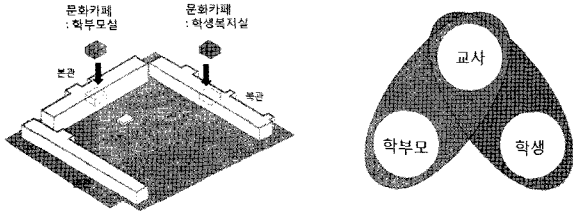


그림 2. 기존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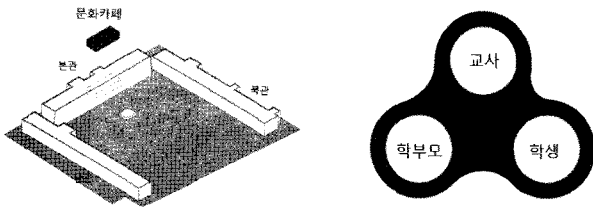


그림 3. 변경계획안

로 양옆에 남관과 북관이 배치되어 있었다. 대상이 되었던 공간은 북관 2층 2개 교실과 그 맞은편 남녀 화장실이었는데 학급감축에 따른 비어있는 2개의 교실로 한 교실은 삼십여 개의 책걸상이 놓인 평범한 교실이었고 다른 한 교실은 현재 국악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초기에 학교 측은 본관에 학부모실인 문화카페를 만들고 북관에는 학생복지실을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부모들은 또 다른 교육주체로써 학교를 방문하거나 회의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았는데, 적당한 공간이 없어 불편해 했었고, 학생들은 자기의 문제나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상담센터 같은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해결책으로 그림 2와 같은 각각의 문화카페를 제안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실과 학생복지실을 다른 건물에 배치했을 경우, 보다 독립적인 활동은 기대할 수 있으나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간의 상호활동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학부모실과 학생복지실을 통합하여 적극적인 상호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는 ‘하나의 문화카페 신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그림 3).

## 2.2 디자인 발전 과정

이 프로젝트는 열린 대화 즉, 소통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공간 디자인에 앞서 학교공간을 사용하는 주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워크숍이 열렸다. 이 워크숍은 학생 및 학부모, 교사를 포함하여 디자인 실무 전문가들이 모여 디자인 방향과 문화 공간 구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 1) 1차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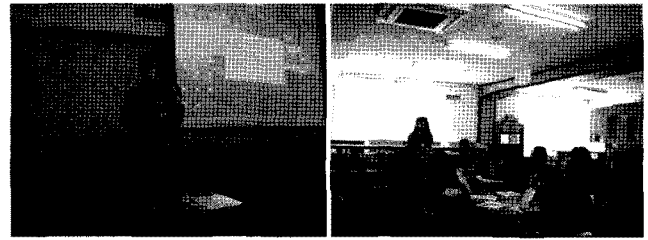


그림 4. 1차 워크숍 진행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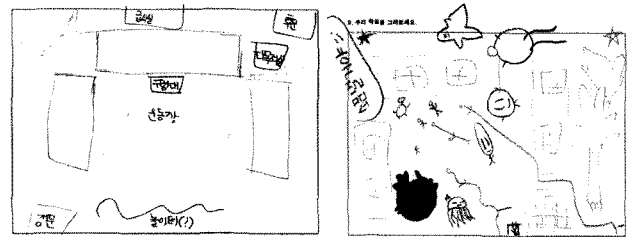


그림 5. 학생의 눈으로 바라보는 학교의 모습

2010년 4월에 열린 1차 워크숍에서는 학교시설과 학교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용자의 불만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는데 설문지 내용을 간략하게 발췌해보면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으로 운동장, 도서실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이유인즉, 운동장에서는 친구들과 좋아하는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으며 뛰어놀 수 있고 도서실에서는 독서 및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가장 싫어하는 곳으로 화장실이라는 응답이 나왔는데 화장실의 위생이 나빠 불편함을 주기 때문이라고 조사되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설문조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학교의 이미지를 종이위에 그려보는 것이었다. 학생들마다 그려지는 학교의 모습은 다양했는데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건물과 외부 공간을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과는 반대로, 건물이 주가 아닌 학교와 주변 환경 속에 자기 자신이 즐겁게 움직이는 동선으로 전체를 꽉 채운 그림이었다. 이 그림을 통해 본질적으로 학생들이 바라는 학교 교실의 모습도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 2) 2차 워크숍

2번째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학부모실과 학생복지실의 분리여부와 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학부모실과 학생복지실 분리 혹은 통합에 대해서 학생들은 서로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분리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교사와 학부모는 독립적인 공간과 오픈된 공간이 공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다음으로 “나에게 교실

하나가 주어진다던?”이라는 주제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꿈과 희망, 추억 등을 모두 털어놓고 자유롭게 스케치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몇 가지 답변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학생: 성남초등학교 교실 하나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그곳을 놀이터로 만들고 싶다. 나는 그곳에서 자유시간, 여가생활을 하고 싶다(그림 6).  
 학부모: 성남초등학교 교실 하나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그곳을 만남의 장소, 비전교실로 만들고 싶다. 나는 그곳에서 마음속의 말을, 미래를 꿈꾸게 하고 싶다(그림 7).  
 교사: 성남초등학교 교실 하나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그곳을 아늑한 쉼터, 대화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나는 그곳에서 조용히 사색 하고 싶다.]

종합해보면 문화교실(카페)을 계획한다면 학생들은 유희를 할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학부모는 ‘휴식과 만남의 공간’으로 교사는 문화교실을 ‘휴식과 대화가 있는 공간’으로 전환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문화교실(카페)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는데, 중요한 사항만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수업시간에도 활용(미디어-실내놀이, 음악감상 등)
- 자기만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 뛰어놀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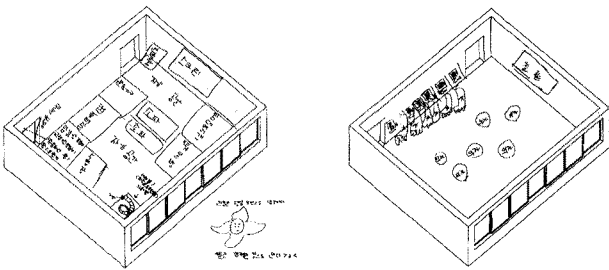


그림 6. 학생들의 문화교실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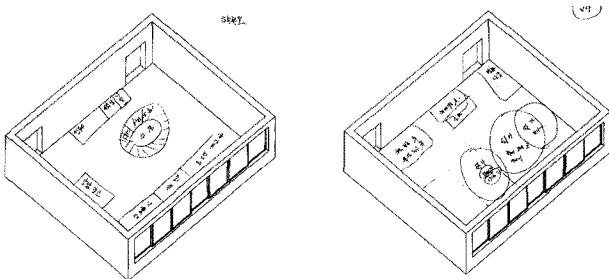


그림 7. 학부모의 문화교실 계획    그림 8. 교사들의 문화교실 계획

- 낙서공간제공
- 바닥에서도 활동 가능하게
- 작은 공간도 분리되어서 상담공간으로 활용
- 다락방이나 미니연못 설치

화장실은 6학년용 남녀 화장실 파손과 폭력과 흡연 등이 벌어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장소에서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함으로써 깨끗하고 깔끔하고 안정된 장소로 바꾸기로 하였다.

### 2.3 문화카페 ‘어울자리’

#### 1) 공간구성

학교의 교실은 배움과 가르침의 공간이자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경험하는 장소이다. 그림 9와 같이 기존의 딱딱하고 획일화된 교실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방식의 행위와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물리적인 환경을 형성해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우선, 기본적인 공간배치는 복관 2층에 학부모실과 학생복지실을 통합하여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간의 적극적인 상호활동과 대화를 유도하는 문화카페를 만들고, 더불어 교사가 학생 상담을 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도 별도로 조성하였다.

#### 2) 공간 디자인 전략

공간디자인은 학교 주체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살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3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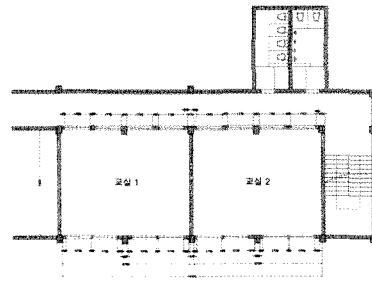


그림 9. 변경 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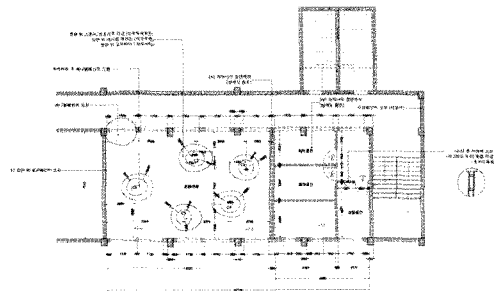


그림 10. 변경 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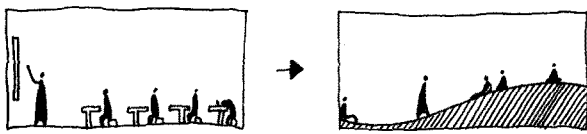


그림 11. 자유로운 형태의 언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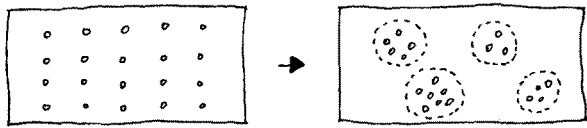


그림 12. 자유로운 영역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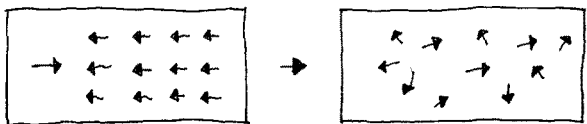


그림 13. 시선의 다각화

첫째, 평평하고 기능적인 교실에서 자유로운 형태의 언덕을 구성한다(그림 11).

둘째, 아이들이 자발적인 영역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줄 수 공간을 마련한다(그림 12).

마지막으로 시선의 다각화로 학생과 학부모, 학생과 교사 간 긴장감 없는 대화를 유도하게 한다(그림 13).

### 2.4 공사과정

내부 벽체, 가구, 천정 전반은 그림 14와 같이 목공사로 진행되었고 나왕 합판으로 KSF 3101규정에 합격한 3중 합판(비 내수합판)1급을 사용하였다. 바닥의 언덕과 원형 구덩이, 문화카페와 회의공간 사이의 벽은 자작나무 합판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동시에 대형 책장으로 활용하게 만들었다.

### 2.5 완성된 모습

#### 1) 문화카페 “어울자리”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멘트 바닥은 포근한 언덕으로 바뀌어 방과 후 학생들이 뛰어오를 수 있는 재미



그림 14. 공사현장



그림 15. 언덕과 다섯 개의 원형 내부 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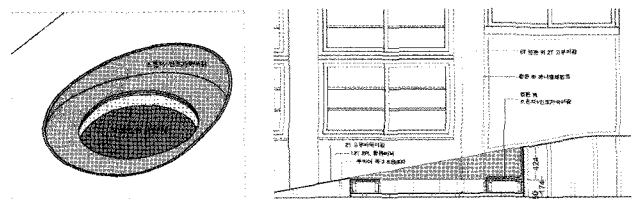


그림 16. 원형 내부 의자 상세도



그림 17. 철판으로 활용하는 벽면



그림 18. 책장으로 활용하는 벽면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고 언덕 중간에는 예닐곱 명이 웅크릴 수 있는 원형 구덩이 다섯 개가 마련되었다. 폭신한 원형 소파가 놓인 그곳에서는 다 같이 모여 앉아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벽과 바닥, 천정 정도를 깨끗하게 고치는 리모델링에서 벗어나서 기존 관념을 180도 뒤집는 작업이었다.

내부의자의 크기와 재질은 학생수와 활동성을 고려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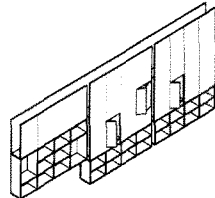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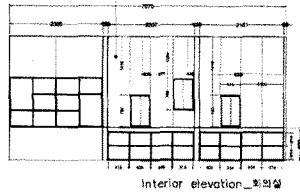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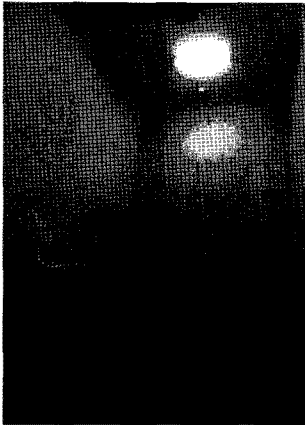


그림 19. 회의공간 및 불박이 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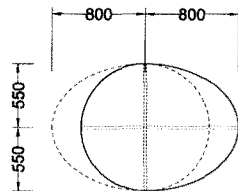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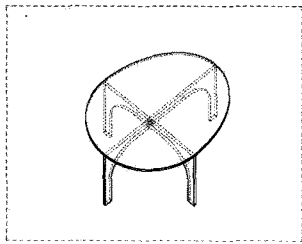


그림 20. 회의공간 테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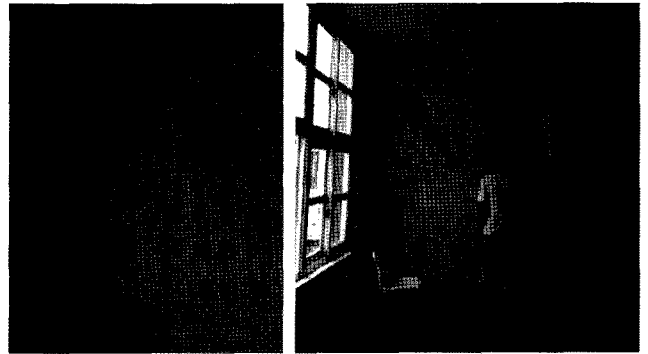


그림 21. 복도의 풍경



그림 22. 화장실 사인계획

결정하였다. 바닥면은 합판위에 고무로 마감하고 의자부분은 스펀지와 인조가죽으로 마감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였다. 계획안 발표 및 피드백 시간에는 언덕과 원형 구덩이에 매료된 학생들이 심지어 구멍을 더 파 달라, 언덕에 인조잔디를 깔아달라는 요구까지 있었다.

교실 한 쪽 벽은 합판위에 칠판페인트로 마무리해 어린 아이들이 맘껏 낙서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반대쪽 벽면에는 공간구획과 동시에 동화책 등을 수납할 수 있는 불박이형 대형 책장으로 계획하였다.

## 2) 회의공간 / 상담공간

회의 및 상담공간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썼고 한쪽 벽면에 포인트를 주어 전체적인 분위기를 화사하게 꾸몄다. 인접한 문화카페와 간섭없이 사용될 수 있게 분리시키고, 좁은 공간안에서 수납을 해결하기 위해 불박이장으로 벽면을 만들었다. 책장 하부에는 책과 서류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으로 상부에는 양쪽으로 개폐되는 수납공간을 만들어 중요한 물건이 노출되지 않게 하였다.

또한, 이곳 테이블은 자작나무로 특별 제작하였는데 문화카페에 설치되었던 내부 의자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었다.

## 3) 복도 및 홀

다소 지루해 보일 수 있는 복도의 하얀 벽면에는 그림 2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러스트로 직접 작품을 만들었다. 동화 속에 나올법한 아기자기한 풍경을 독창적으로 그려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하게 하였다.

## 4) 화장실

노후화된 화장실은 변기와 변기배관을 교체하여 물 내리는 방식을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전환하였고 파손된 상태의 큐비클과 벽체, 천정 바닥을 타일로 교체하여 마감하였다.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깔끔한 화장실이 될 수 있게 노력하였고 더불어 음악이 흐르는 장소로 탈바꿈시켰다.

## 2.6 앞으로의 기대

문화카페의 아이디어는 그 공간의 주인이 될 성남초등학교 학생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현되었고 '어울자리'라는 명칭 또한, 교사들의 응모에서 선정되었다. 이런 열정적인 성원과 응원에서 완성된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모난 교실은 푸른 언덕이 펼쳐지면서 학생들이 마음껏 즐기게 대상이 되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행해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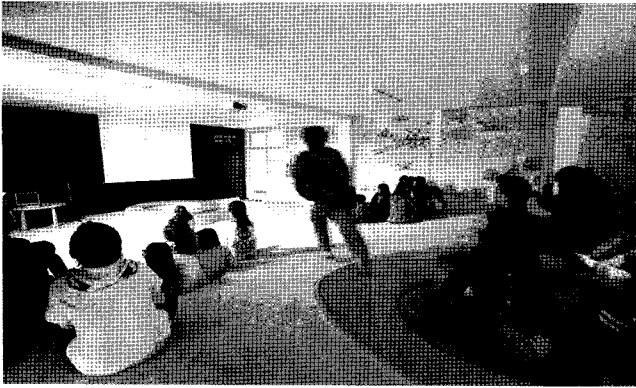


그림 23. 푸른 언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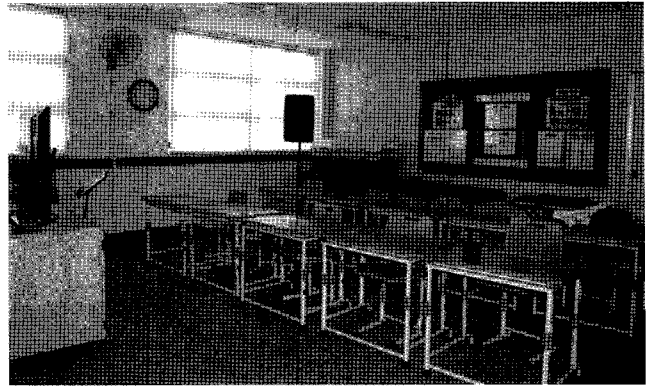


그림 25. 변경 전 4층 특기적성 교육교실



그림 24. 발표회, 연주회 등으로 공간활용



그림 26. 변경 전 4층 홀

서 문화로 꽉 찬 공간이 되었다. 이곳의 정치완 교장은 “이런 공간이 생기면서 학교 전체가 밝아졌다. 앞으로도 이곳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열어 학생들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키우겠다.”<sup>3)</sup>고 전하면서 앞으로의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였다.

작은 노력에서 시작한 이 공간의 변화는 학교 전체 이미지를 향상시키게 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 것이다. 꾸준한 관리와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이런 작은 즐거움이 계속 이어져 나가길 기대해본다.

### 3. 대구 영화학교

#### 3.1 사전조사

1946년 설립된 대구 영화학교는 유치부, 초등부, 중, 고등부를 합쳐 71명의 청각장애 학생들이 재학 중인 교육기관이다. 대상공간은 영화학교 4층 홀 및 특기적성 교육 교실이었다. 홀은 어둡고 산만한 공간감으로 휴식과 교류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특기적성공간은 기존 교실을 그대로 사용하여 다양한 활동이 불가했을 뿐 만 아니라 바닥재가

노후화되어 미끄럽고 위험하였다. 따라서 특기적성 교육교실을 ‘문화 자람터’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장애 학생들이 문화를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학생 공용공간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 3.2 디자인 발전 과정

##### 1) 1차 워크숍

2010년 4월에 시작된 워크숍을 통해서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나누었다. 앞서 설명한 성남초등학교와 동일하게 설문지를 통해서 학교 환경 만족도 및 특기적성 교육교실(문화 자람터), 홀 및 복도, 음악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알아보았다. 4층 공간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현재 학교시설 일반 환경에 대한 만족도보다 현저하게 낮았고, 특히 과학실, 홀 및 복도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50%에 달해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다. 문화적 공간 및 관련 프로그램 활동의 현황과 수요에 대해서는 기존의 여러 문화 활동에서 공예, 요리, 악기연주/ 마술, 댄스, 노래/ 음악 감상/ 애니메이션, 십자수/ 퀼트로 압축되었다. 세부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공간조건들을 도출하고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디자인 이슈를 도출하였다.

3) 2010. 10. 13 연합뉴스



그림 27. 1차 워크숍의 모습

[문화 자람터]

- 다목적 공간 및 가변형 공간으로 조성
-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편안하게 설 수 있는 공간으로 되었으면 함
-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편안하게 쉬는 휴게 공간조성
- 바닥과 벽은 나무로 마감하여 자연적인 느낌으로
- 과학실을 다른 곳으로 이동 (위험성 때문)
- 블라인드, 커튼 등 필요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 수납장 설치 (벽장형-전면으로)
- 수납장, 의자와 탁자 등은 활용도와 함께 디자인적인 요소가 포함된 것이면 좋겠음
- 탁자와 의자 등은 이동과 분리가 용이한 것으로(소그룹, 대그룹 활동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홀 및 복도]

- 전체적으로 밝은 공간, 편안한 휴식공간
- 자연에 온 느낌이 나는 가고 싶은 공간
- 벽면 : 재질 자체를 꾸밀 수 있는 전시용으로(화이트보드, 자석, 펠트, 코르크 등)
- 창틀을 화사한 색으로 단열창 사용
- 게시판 없애기, 탁구대 이동
- 소파, 테이블, 보드게임, 거울, 정수기 설치

[음악실]

- 바닥-마루공사 필요
- 악기수납장 필요(블박이장 형태로 짜 넣고 문 전체를 거울로 붙임)
- 벽공사 : 방음 및 페인트, 밝고 편안하고 따뜻하게
- 따뜻한 분위기의 간접조명
- 책상과 의자, 칠판을 음악수업에 용이한 것으로 교체 (수업 이외 시간 사용할 수 있게 접이식으로, 칠판에 악보 잘 볼 수 있게 빔 프로젝터 설치)

- 창문 : 블라인드 설치
- 현재 음향기기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플레이어 기기 구입

2) 2차 워크숍

1차 워크숍을 통해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 28과 같은 기본 공간구획을 계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그림 29와 같은 모형을 제작하였다. 2차 워크숍의 진행은 공간 디자인 개념을 공유한 다음 이를 의논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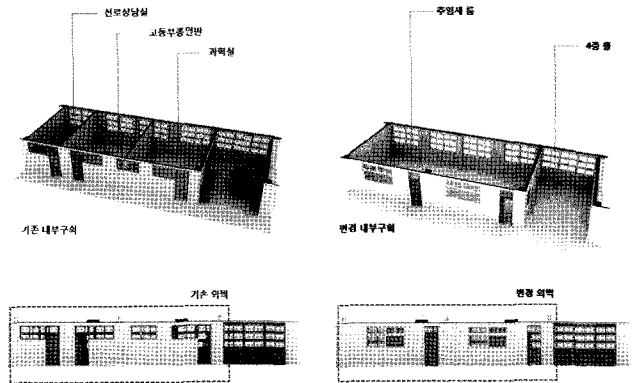


그림 28. 공간구획 변경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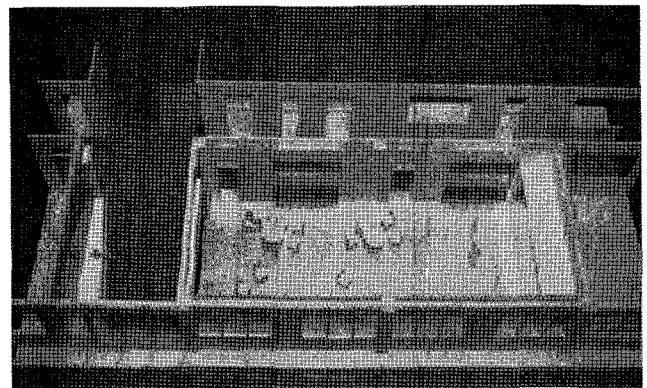


그림 29. 기본계획안 모형



그림 30. 스티커 보드로 진행된 선호도 조사









그림 34. 음악실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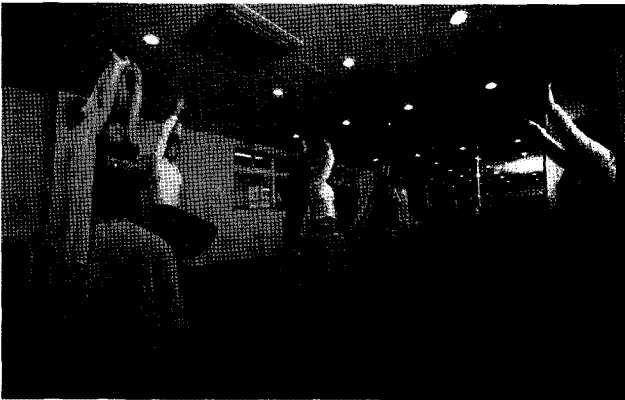


그림 35. 특기적성 교육공간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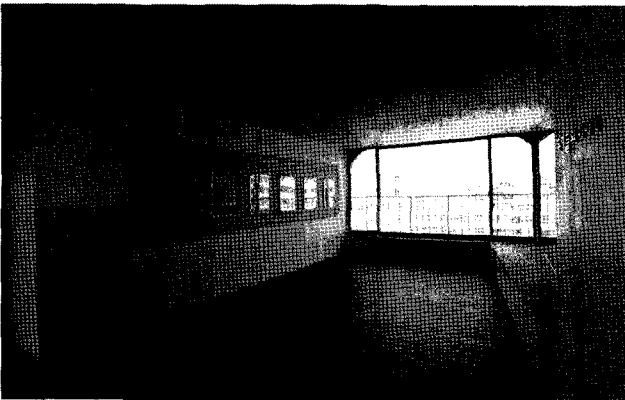


그림 36. 게시판 및 목공예조각상



그림 37. 우리들의 이야기

연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업 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창마다 블라인드를 설치하여 시야를 차단시켰다.

평상시 활용되는 책상은 가변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이동하기 쉽고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수 있도록 4인용으로 제작하였다.

## 2) 복도 및 홀

문화자람터 문을 나서면 학생들이 수화로 표현할 수 없는 글과 사진을 쓰고 붙일 수 있는 대형 게시판 ‘우리들의 이야기’의 모습이 등장한다. 7천여개의 수화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개인적인 이야기와 사진을 이곳에서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것이다.

바닥은 자주색과 그린으로 마감하였고 닭장처럼 답답했던 예전 창문은 베란다형식으로 확 터놓아 공간 분위기를 한층 밝게 하였다. 그리고 이 학교 졸업반 학생들 가운데 취업 준비를 위해 목공예반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간문화재(조각가) 박찬수씨가 본인의 조각 작품 기증하여 이 공간에 운치를 더해주었다.

## 3.6 앞으로의 기대

영화학교는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특수한 성



그림 38. 특기적성 교육공간으로 활용



그림 39. 교류와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

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감각적인 부분에 많이 비중을 두고 한 프로젝트였다. 디자인을 총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교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그들 역시 자기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공간을 성공적인 문화공간으로 변신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었다. 이런 성공적인 문화공간으로 변신하는 데는 결국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화학교 윤희희 교장은 “딱딱한 교육현장에 하늘, 숲 등 자연소재를 접목한 문화공간개념이 도입되면서 정서적으로 메마르기 쉬운 학생들의 소통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푼 기대를 표시한 적이 있다.<sup>5)</sup> 이런 문화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용 프로그램 정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속적인 연구와 실현을 통해 그 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4. 제도적 보완 및 사고의 확대

기존의 제도적 경직성에서 벗어나 계획과정에서 사용자측과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교육환경에 변화를 주는 이 사업의 영향력은 긍정적이다.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관련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해본다.

첫째, 사업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에 진정으로 부합되며 학교의 자발성 및 참여를 감안하여 그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각 교육시설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발적 의지가 반영되어야 하고 아울러 교육청 및 학교 자체 발주 공사들의 통합적 검토와 진행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둘째, 예산의 현실성에 대한 문제로서 학교별 예산 가용 범위의 제한으로 인해 부분적인 공간 개선으로 한정되며 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인적 지원에 대한 지원 부족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시설 공사에 대한 감리의 영역과 권한 그리고 이를 지원할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 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의 감독권은 교육청 담당이 실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세부적 감리가 불가능하며 계획의 과정에서 사용자측(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과 충분한 검토와 다양한 시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제도적 경직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공간의 개선과 새로운 공간의 기획 이전에 교과 및 학교의 특수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반영한 문화 및 기타 소프트웨어 기획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공간 운용 프로그램의 정립과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실현을 뒷받침하는 지원은 일회성 공간개선사업을 넘어서 문화의 체험과 인성의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잠재력 발견 및 정신적 성숙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한 현재 입찰제도의 보완과 함께 공사 감리의 전문성 확보를 바탕으로 각 사업들의 사후 평가 제도와 운용 실적에 따른 추가적 지원을 한다면 더욱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1. 최병관 외, 교과교실제 공간구성에 관한 토론, 2009
2. 김혜정 외, 고등학교 학습공간 리모델링을 위한 학생참여디자인 연구, 2010

#### 기획편집



강성인(Kang, Sung-In)  
리모델링위원회 위원, 공간그룹 본부장  
sikang@spacea.com

5) 2010. 03. 04 경북일보